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7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사00갈00아00 (Sha00000 Kha000 A000, 000000-0000000), 군인
주거 서울
국적 미국
검 사 윤경원(기소), 박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판 결 선 고 2012. 3.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 규정)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5. 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00클럽'에서 강00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00로부터 스파이스 약 10개를 교부받아 소지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00이 교부하였다고 하는 스파이스가 JWH-018 성분을 함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강00로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강00로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강00의 진술이 있다.

1) 강00에 대한 2011. 7. 25.자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① 강00이 2011. 6. 16. 더00에00(Y000 De000)에게 10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스파이스를 받았다.
- ② 강00은 그 이후인 2011. 6. 25. 03:00경 00클럽의 DJ박스 내에서 '슬램'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흑인에게 담배 10개비 분량의 스파이스를 주었다.
- ③ 당시 슬램은 00클럽에서 금, 토, 일요일 24: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댄스경연대회 및 파티 MC로 일했다.

2) 강00에 대한 2011. 9. 19.자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① 2011. 6. 25. 03:00경 00클럽에서 일명 '슬램'에게 스파이스를 건네주었다.

② 슬램은 00클럽에 손님으로 자주 만나서 알게 되었고, 그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서 무상으로 주었다.

③ 슬램은 키가 190cm 정도의 흑인이고, 그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사진과 흡사하다.

3) 강00에 대한 2011. 10. 28.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
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① '슬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흑인을 아는데, 그 별명도 2011. 7.경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엔 '니거'라고 불렀다.

② 강00은 00클럽 DJ로 일하고 있고, 슬램은 위 클럽에서 주말에 MC를 하였다.

③ 강00이 슬램에게 스파이스를 교부하였는데, 그 슬램이 피고인이다.

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이
없고, 피고인의 신체, 주거 등에서 스파이스가 압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변
등 검사에서 스파이스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00의 위 각 진술만이 이 사
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00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① 강00은 2011. 6. 25.경 00클럽 내 DJ박스의 왼쪽 뒤편에 있던 CD플레이어를 넣
는 가방 안에 스파이스를 둔 상태에서 위 DJ박스 안에서 음악을 믹싱하고 있었
기 때문에 온 신경을 거기에 쏟아 붓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위 가방에서 스파이
스를 집어가는 것을 결눈질로 보았다. 그 사람이 피고인과 체격이나 인상이 비
슷한 것으로 생각될 뿐 정확히 피고인인지 모르겠다.

②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혹시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건넨 것이 맞느냐는 질
문을 받고, 그 때 스파이스를 가져간 사람의 인상이 피고인과 비슷하여 피고인

이 맞다고 진술한 것이고, 그 때 경찰관이 누구라도 지목하라고 하여 혹시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등을 통하여 진실이 밝혀져서 풀려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추측을 답아서 진술하였다.

③ 당시 스파이스를 가져간 사람을 두 번 보았으나, 첫 번째에는 음악을 믹싱하는 순간이라 자세히 볼 수 없었고, 두 번째에도 피고인(슬램)이라고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본 것은 아니다.

④ 위 DJ박스에 피고인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다른 흑인들도 매우 많이 온다.

5) 강00의 위 각 진술증거를 종합하면, 강00로서는 최초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암시를 받고 그 선입견이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무고하다면 소변 등 검사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선불리 생각하고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최초의 진술 이후 그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강00로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강00에 대한 위 진술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6) 멜00술0, 더00에00의 각 진술증거와 각 서류증거는 정황증거는 되지만,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다.

나. 강00이 교부한 스파이스에 JWH-018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강00이 누군가에게 교부한 스파이스는 멜00술0이 2011. 6. 15. 김00(투니)으로부터 구입하여 더00에00에게 판매한 것인데 멜00술0 자신도 그 스파이스를 사용한 경험은 없다.

- ② 더00에00 자신도 멜00술0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스를 강00에게 매도할 때 포장된 그대로 전달하였고 스파이스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 ③ 멜00술0과 그녀의 남자친구 비0베0000이 2011. 6. 23. 소지하던 스파이스와 비0베0000의 소변에서 JWH-018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멜00술0이 김00(투니)으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스가 위와 같이 소지하던 스파이스와 동일한 성분이라는 증거는 없다.
- ④ 강00, 멜00술0, 더00에00 모두 스파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상표에 따라 성분 차이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았다고 하는 스파이스에 JWH-018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_____

 판사 강동원 _____

 판사 강인혜 _____